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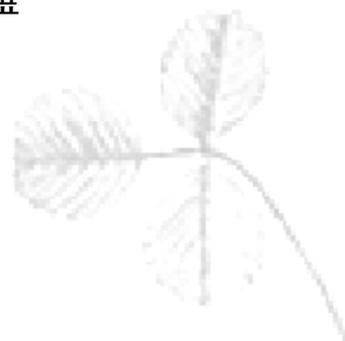


■ 토 론 2.

서천군 귀농·귀촌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상 구

서천군 "자연에서 찾은행복"
대표



서천군 귀농·귀촌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구(서천군 “자연에서 찾은 행복” 대표)

■ 발표자소개

이상구 : skli112100@hanmail.net

현재 : 서천군귀농인협의회내 충남형사회적기업 “자연에서찾은행복” 대표

과거 : 서울 및 부산의 특1급호텔(하얏트)에서 임원으로 30년간 근속하다 퇴직후 지난2007년 서천군으로 귀촌후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충남형사회적기업의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 들어가며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서천군내 거주하는 귀농인 약 20여명이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2009년2월 서천군귀농인협의회를 창립하였고 충청남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후 지역주민을 포함 귀촌/귀농인 약400여명, 도시거주 예비귀농인 약2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귀촌/귀농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며 회원 상호간 도농교류 및 나눔을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말 “충남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농·특산물판매, 생태건축사업, 조경업등을 운영하면서 귀촌/귀농인 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천군청의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파트너로 함께 사업을 시작하여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소재 성암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강의실, 식당, 체험농장등의 공간을 활용해 도시민의 교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인 온오프상 귀촌/귀농 길라잡이 역할로 인해 “서천군귀농인협회”가 전국적으로 인지되었고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많은 예비귀농인들의 상담이 계속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3~40대의 젊은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2007년부터 비영리단체인 서천군귀농인협의회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귀촌/귀농관련업무의 도우미 역할을 해오면서 몸소 보고 느낀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귀농/귀촌업무

중앙정부로부터의 귀농시책/정책등 귀촌/귀농업무를 담당하는 창구가 일원화 되기를 바라고전담인력이 고정배치되어 귀농업무만 올인할 수 있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귀농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이 안되어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예로, “빈집

수리보조”는 금년에 아예 신청자체를 접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확고한 신념으로 전귀농담당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적극적인 태도와 발상으로 전환되어지기를 바라며, 귀농인이 전입신고시 “귀농인이력관리카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면 동시에 인력풀이 가동되어 일자리제공과 연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귀촌/귀농인

물론 “굴러온돌이 박힌돌을 뽑을 수 는 없다” 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귀촌/귀농인에게만 인내하고, 양보하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농촌도 모든 것이 변화하고, 달라진 상황에서 원주민들도 왜 귀촌/귀농인이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의식 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이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예비귀촌/귀농인들의 자세

막연히 시골가면 무슨 수 가 생기겠지? 하는 안이한 태도나 귀농하면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데 하는 마음가짐은 문제입니다. 물론 사전 귀농교육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만 가끔은 대책없이 내려와 아니면 그만이지 하고 결국은 역귀농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도시의 생활과 많이 다른 환경, 문화, 정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는 일까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것입니다.

4.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순기능

서천군귀농인협회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충남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생태건축팀을 운영하여 금년에 지역주민 및 회원들로부터 단독주택 3동을 수주받아 완공하므로서 연매출 4억원과 8명의 인력을 상시고용 하는 효과를 이루었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더욱 영업실적이 신장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5. 귀촌/귀농인들의 다양한 전직현황

약100여명의 귀촌/귀농인 전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직종들이 산재하여, 이들의 재취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서천군 귀촌/귀농인 전직조사 결과>

만화작가	2	주택관리사	2	자동차정비업	1
가스회사	2	공인중개사	3	약사	1
요리사	2	백화점원	1	수산업	1
은행원	2	축산업	2	화훼업	1
공무원	5	양계장	2	설계사무소	1
직업군인	3	자연의학	1	경찰공무원	1
군무원	2	목수	2	도예가	2
농업	10	사진작가	2	법무사	1
조경업	6	포크레인기사	3	향토사학자	1
세무사사무장	1	건축업	6	고물상	1
보험설계사	2	요식업	3	떡집	1
화가	2	곤충사업	1	교사	2
호텔리어	1	쇼핑몰운영	2	사회복지사	2
운수업	2	어린이집운영	2	방송국직원	2
여행사	2	천연염색	2	중소기업운영	1
영양사	1	정육점	2	병원사무장	1
학원운영	4	한글강사	1		

6. 귀촌/귀농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제공이 가능합니다.

작금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난속에서 이들의 다양한 전직 및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직종에 재취업 및 프로보노로서의 재능기부등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7. 귀촌/귀농인은 전업농에 도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영농에 대한 무경험과 막대한 시설투자등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경제활동을 찾아야 되는데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일자리센터 등과 연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8. 귀촌/귀농인들의 잠재시장은 무한합니다.

이들이 마케팅의 주역이 되어 이미 형성하고 있는 도시의 직.간접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홍보,판매 등을 활용한다면 그 시장성은 대단한 구매력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제2장 귀촌/귀농인들의 대표적 활동사례

사례1 :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무국장 정경환/2006년귀농



- 정경환씨의 귀농 전 직업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온누리 여행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다 귀농을 결심
- 2007년부터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창립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운영위원 및 사회적기업 전문직과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무국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귀농투어, 귀농교육, 영농체험등 예비귀농인들의 귀농도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이 인정되어 농업기술센터소장 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사례2 : 동자북마을 사무국장 이한광/2010년귀농



- 이한광씨의 귀농전 직업 : 중소기업체 경리팀장 (경력15년)/세무사사무실 실장 (경력10년)
- 귀농 계기 : 복잡한 도시보다 시골의 자연스러움을 동경 -> 서울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 120시간 이수 -> 서귀협의 회원들과 교류(온,오프라인)하면서 귀농결심.
- 동자북마을 근무 : 30억 투자하여 2009년 8월 동자북 문화역사 마을을 건설하였으나, 1년 6개월동안 매출 및 방문객 실적이 저조하여 적자운영에 허덕일 시기인 2011년 3월에 사무국장으로 근무시작.
- 동자북마을 판매실적 : 근무 전 년매출이 약 6백만원 (방문객 약 200명)이었으나, 이한광 사무국장 취임후 동자북마을 카페개설 및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2011년 매출액 8천5백만원 (방문객 2,450명)으로 전년대비 약 12배의 매출이 신장되어, 실적을 인정받고 2012년 2월에 서천군수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KBS 라디오 '성공한 귀농인'으로 방송 소개되었습니다.

사례3 : 갈숲마을 사무국장 백성식/2011년귀농



- 백성식씨는 40대초의 부부로 도시에서 정육유통업에 종사하다 2011년 초등학생2명과 함께 귀농하여 남편은 갈 숲마을 사무국장으로 아내는 육아 및 마을의 봉사활동을 해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못 예비귀농인들의 귀감이 되는 사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4 : 심동리 마을 사무국장 백호/2010년귀농



- 백호씨는 전직이 공무원출신이며 서천군귀농인협회가 주최하는 귀농투어에 참여한게 동기가 되어 2000년 부인과 함께 귀농하여 빈집을 구입 후 직접 리모델링하여 살고 있으며 판교면 심동리 산촌마을의 사무국장으로 취업되어 일하고 있으며 부인은 조리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단체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사례5 :만화작가 장광일 이야기/2007년귀촌



13

- 만화작가 및 시나리오작가로 활동해오다 5년전 서천군 서면 월호리로 귀촌하여 재택근무를 통해 현재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천군청의 요청에 의해 서천군홍보용만화 및 서천군소식지에 만화를 기고하는등 서천군홍보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 나오며

서천군에는 이외에도 다수의 체험마을 및 생태관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에 개원예정인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등 대형국책사업으로 여러 직종의 인력이 수요될것에 대비해 "서천군종합일자리센터" 가 군에서 운영되고 있어 귀촌/귀농인들의 구직활동에 큰도움이 되어 지역과 귀촌/귀농인 그리고 지역민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 제부터, 도시의 삶에 지치거나, 아니면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 때문이거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700여만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앞두고, 귀촌/귀농이 화두로 다가오는 요즘, 서천은 향후 이들에게 귀촌/귀농 선호지역으로 선택되어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